

사회

대학 예산은 '쌈짓돈'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부부와 교직원, 조선이공대 교수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학교 예산이나 정부가 학생 뒤편으로 지급한 장학금을 개인 금고처럼 여겼다.

등록금 고민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휴학을 하는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광주여대 총장 오모(50)씨 부부는 지난 2007년 초 학교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집에

고용할 가사도우미 1명을 명단에 추가했다. 이후 2년 동안 대학 예산 가운데 매달 100만원씩을 자신들의 집 안일을 하는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했다.

총장 부부의 '학교 예산 빼먹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09년부터는 실제로 일하지 않고 있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2년 동안 대학 예산 2500만원을 직접 받아 챙겼다.

자신들의 행위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로 돈을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학교 도서관장 오모(45)씨는 총장 부부보다 한 술 더 떴다. 오씨는 총장 부부가 학교 예산을 빼돌릴 수 있게 교직원 등 2명에게 서류 위조·결재를 지시했다.

자신은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학교 경리계장 윤모(38)씨와 함께 각각 3790만원과 3672만

원을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 상납받았다. 수년간 학교청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였다.

오씨는 대학 법인이 운영중인 주차장 면수를 부풀려 관리비 명목으로 24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직원 하모(42)씨 역시 학교 예산 416만원을 몰래 챙긴 뒤 동료의 횡령 사실을 눈감아줬다.

조선이공대 교수 전모(여·48)씨는 정부가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장학

청소용역 위장 수천만원 빼돌리고 수의계약 리베이트로 뇌물 상납 받고 학생 장학금 가로채 식사비로 쓰기도

을 노렸다. 전씨는 조교(여·24)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을 지급 해주겠다"며 학생 20명으로부터 통장을 건넸다.

이후 전씨는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학금 가운데 1000만원 가량을 학생들의 통장으로 옮긴 뒤 인쇄해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도장 위조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꿈을 포기하는 상황이

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학 관계자들의 뻔뻔한 공공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횡령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일보는 두 대학의 입장을 듣기 위해 10차례 가량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340) 김중두



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장 1년 면허정지

앞으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장 1년의 면허정지처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호랑이 굴'로 들어간 민취 운전자

○민취 상태에 서 차를 몰고 전남 지방경찰청으로 난입해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경찰서령.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0)씨는 이날 새벽 3시에 혈중 알코올농도 0.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시 서구 전남지방경찰청사로 진입한 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아 뒤범퍼를 부딪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전남지방경찰청 정문 청사로 진입하기 위해 정문 앞에서 한 차례 후진까지 하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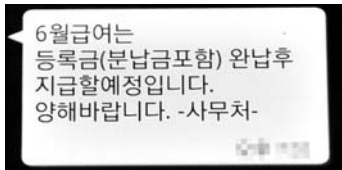
학생이 봉? "못 준 교수 월급 등록금 받아 주겠다"

성화대학, 급여 미지급 횡당 대책 문자 메시지

교수 월급으로 13만여원을 일괄 지급한 강진 성화대학(광주일보 6월 20일 7면)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횡당한 대책을 제시해 또다시 반죽을 사고 있다.

20일 성화대 일부 교수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12분 '사무처' 명의로 교직원들에게 급여 미지급 해결방법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6월 급여는 등록금(분납금 포함) 완납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해 바랍니다."라며 "이에 대해 교직원들은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마디로 학생들을 대학의 수입원쯤으로 여기는 처사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대책이 고작 등록금을 안 낸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 교수들에게 준다는 것"이라며 "그 동안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이 대학 교수 27명은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하고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총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성화대는 지난 17일 이번 달 급여로 교직원 120여명에게 13만6천여원을 일괄 지급했다.

1997년 문을 연 2~3년제 대학인 이 학교는 공학 등 4개 계열 40여개 학과에 2천600여명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은 학과마다 다르지만, 평균 200만원가량이며 교수 월급은 일반적인 대학교원의 호봉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교수들은 전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실버 인터넷 교육

노인들의 정보화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광주시 북구청이 마련한 '실버 인터넷 교육'이 20일 오후 용봉동 전남대 자연과학대학 실습실에서 열렸다. 실버 인터넷 교육에 참여한 한 노인이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노인들의 정보화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광주시 북구청이 마련한 '실버 인터넷 교육'이 20일 오후 용봉동 전남대 자연과학대학 실습실에서 열렸다. 실버 인터넷 교육에 참여한 한 노인이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명품' 고창 수박만 골라서...

수박·단호박 7500만원 어치 훔친 40대 구속

'명품'으로 대우받는 고창 수박을 전문적으로 훔쳐온 도둑이 붙잡혔다.

경찰청은 20일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수박과 단호박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40·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에 고창군 삼내면 이모(54)씨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수박 500개(시가 1000만원)를 훔치는 등 고창군 일대에서 모두 36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 상당의 수박과 단호박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농산물을 광주 농산물 도매시장과 점음지역에 팔았다 관매해 유희비와 도박 등으로 썼다고 경



찰은 전했다.

고창 수박은 지난 10일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에서 진행된 제2회 고창군 우수농특산물 출시전 경매에서 주민 김중일 씨가 키운 수박 '탑2호'가 23만5000원에 낙찰되는 등 명품으로 떠오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10년여간 수박을 재배한 경험이 있어 수박 농가의 위치 파악과 처분을 손쉽게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외상대금 등 수익원 끌껴 유통회사 영업직원 구속

자신이 근무하는 유통회사의 외상대금 등 거액을 가로챈 영업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A유통회사 영업담당 남모(37)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조곡 유통업자인 선모(42·구속)씨로부터 외상거래 청탁을 받아준 대가로 1억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A유통회사에 빚을 진 이모(42)씨로부터 현금 대신 미국 5천 2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뒤 이를 현금화해 1억70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수채용 뇌물 전 조선이공대 총장 실형

공짜 성형수술에 골프 접대도 받아

광주지법 징역 8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20일 교수 채용 대가로 부로 주름 제거 시술 등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조선이공대학 전 총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

징금 4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대학 총장의 지위를 남용해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씨는 2008년 7월께 당시 신설 예정인 피부미용과 전임교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수 지망자에게 주름제거 시술과 골프 접대, 3000만원 받는 등 2명으로부터 채용을 돕는 대가로 4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손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DA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